

일주문

현성 스님 독거어르신 돕기
 대한불교청소년연합회 총재 현성 스님은 12월 21일 동지를 맞아 서대문구청에서 독거어르신 및 탈북가족 30명에게 쌀 20kg을 각각 전달했다.

수석사 육군32사단 위문
 예산 수석사 주지 용산 스님은 12월 15일 육군 제32보병사단을 방문해 떡과 과일 위문금을 전달하고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고운사 선체현관 특별철야정진
 의성 고운사 주지 호성 스님은 12월 31일부터 신년 1월 2일까지 선체현관에서 특별철야정진을 봉행한다.

봉선사 범종루 낙성식
 남양주 봉선사 주지 인묵 스님은 12월 31일 봉선사 경내에서 범종루 낙성식 및 송년법회 탐돌이를 개최했다.

연꽃마을 동지팔죽 공양
 연꽃마을 이사장 각현 스님은 12월 22일 동지를 맞아 안성파라밀요양원을 비롯해 총 24개의 산하시설에서 3만 5000인 분의 팔죽을 공양했다.

봉은사 봉암사 대중공양
 서울 봉은사 진화 스님은 1월 3일 문경 봉암사로 대중공양을 봉행한다. 참가신청 (02)516-6630

선각종, 제10회 찬불가 경연대회
 대한불교선각종 총무원장 정암 스님은 12월 15일 광주교도소 대강당에서 재소자 3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제10회 불교 독경 및 찬불가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우리는선우 제1기 주역선해
 성태용 우리는선우 대표는 1월 12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전 7~9시 서울우리 함께빌딩 6층에서 총15회에 걸쳐 '주역선해'를 강연한다.

<열반>익산 태봉사 조실 상수 재공 스님
 익산 태봉사 조실 상수 재공 스님이 12월 20일 세남 92세, 법랍 82세에 입적에 들었다. 재공 스님은 1928년 3월에 공주 신원사에서 원호 스님을 은사로 10세에 출가했다. 재공 스님은 1940년 익산 태봉사를 창건했다.

“주얼리로 불교 이미지 바꾸겠다”

불교계 청년 소셜 벤처사업가 김민지

“주얼리에 부처님 마음을 담았어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마음을 디자인 한다고 할까요. 종교를 비롯한 모든 것이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추구 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어렵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쉽게 전하고 생활화 하는 거죠. 사람들이 제가 만든 주얼리를 하고 마음을 치유하고, 이 수익금이 제3세계에 쓰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진 능력이 좋은 일에 쓰인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수 있을거예요.”



불교계 청년 사회적 기업 1호를 준비 중인 김민지 씨(26)는 요즘 누구보다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 김민지 씨는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전통과 철학이 있는지 일깨워 주고 싶다”며 사회적 기업 창업에 뛰어 들었다. 김 씨는 사람들이 불교상품을 보며 ‘고리타분하다. 낡았다. 후지다. 진부하다. 촌스럽다’는 반응이 싫었다. 한국 문화유산의 70%를 차지하고, 세계에 내 놓아도 손색없는 불교문화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김민지 씨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먹었다. “고등학교 때 부여박물관에서 백제 금동대향로를 봤어요. 금동대향로의 섬세함과 아름다움을 보고 말을 잃었죠. 향로에는 실용성과 장식성, 조형성은 물론 혼이 담긴 그대로였어요. 사회적 기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올해 6월 정교회 100일 출가 기간 동안의 일이었다. 정교회 대학생 작은 짜이집 봉사를 하면서 제3세계를 돌겠다던 막연한 생각이 수행을 통해 사회적 기업으로 구체화 됐다. 또 수행은 불교의 예술적 가치 외에 ‘마음’의 진정한 가치를 알려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단순히 팔기위한 것은 아니에요. 근원으로 가야해요. 모두 수공예로 만들어 지는 제 작품에는 혼과 영혼이 담겨 있어요. 마음을 치유하는 주얼리를 통해 문화적 가치를 현대화하고 상품화할 계획이에요. 꼭 사회적 기업으로 승인받아 제3세계 어린이를 돕고, 한국전통문화의 가치를 세계에 알릴 거예요.” 김민지 씨 작품은 제1회 불교문화상품공모전에서 2위로 입상했다. 지난 봄에는 ‘YOU ARE BUDDHA’전을 개최하는 등 불교 용품의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백제금동대향로에 담긴 불교문화의 가치가 현대에 감동을 주듯 삶의 진정한 가치를 알려준 정신적 문화적 불교문화를 이어 갈 계획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 혼자 갖고 있지 않겠다는 것.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가치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전 사회적 기업을 선택했어요.”

글=이상언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김상기 신임 육군참모총장 취임

불자 장성 대거 진급



김상기 신임 육군참모총장은 육사 32기로 육군 제50사단장을 거친 뒤 육군본부 전력기획부장, 특수전사령관, 국방부 정책실장, 제3야전군사령관 등을 역임했다. 군법당 범죄를 거르지 않을 정도의 독특한 불심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김상기 육군참모총장은 야전부대 경력이 풍부하고 정채분야에도 능통해 최적의 인물로 평가돼 왔다. “싸울 수 있는 군인을 만들겠다”는 군 개혁 방침을 잘 이행할 수 있는 전형적인 야전부대로 꼽힌다. 김상기 육군참모총장은 취임사에서 “기(氣)와 혼(魂)이 깃든 부대지휘를 통해 사기가 충천하고 신바람 나는 선진

육군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위로부터의 변화와 자기혁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강군을 만드는 데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자”고 말했다. 군종교구는 12월 말 군내 주요 보직 및 인사 이동 후 불자 장군 현황을 2차 취합해 진급 축하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진급 불자 장성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상기 육군참모총장(육군 대장) △정연봉 김명섭 승장대 장군(육군 소장 진급) △이광수 박성혁 장군(공군 소장 진급) △공회식 김상철 원안균 이해영 정진국 문영기 장군(육군 준장 진급) △김경일 박동우 장수홍 장군(해군 준장 진급) △장경식 정영진 장군(공군 준장 진급) 노덕현 기자

MBC ‘법정 스님 2부작’ 대상

제18회 불교언론문화상 시상식

제18회 불교언론문화상 대상에 MBC스페셜 ‘법정 스님 2부작’이 선정·시상됐다. 조계종 총무원과 사단법인 보리(이사장 김재일)는 12월 21일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제18회 불교언론문화상 시상식을 봉행했다.

대상을 수상한 MBC 이현숙 PD의 ‘법정 스님 2부작’은 법정 스님의 삶과 사상을 조명한 다큐멘터리로 이 시대의 삶의 표상을 제시했음 뿐 아니라 불교의 사상과 가치관이 프로그램의 곳곳에 잘 배어있는 수작으로 평가 받았다.

이 밖에 불교언론인상에는 유자효 불교언론인회 고문인, TV부문 최우수상은 KBS 부처님 오신 날 특집 ‘미소의 길 3부작’이, 라디오부문 최우수상은 대구불교방송의 열반절특집 드라마 2부작 ‘대얼

반’이, 신문부문 최우수상은 전상천·민정주 기자(경인일보)의 ‘길에서, 원효를 만나다’, 인터넷부문 최우수상은 송광사 홈페이지(www.songgwangsa.org)가 선정됐다.

특별상은 박영환 KBS 보도본부 9시 뉴스 앵커와 MBC 창사특집 다큐멘터리 ‘아마존의 눈물’을 연출한 김진만·김현철 PD에게 돌아갔다.

TV부문 우수상은 KBS 3·1절 특집 다큐멘터리 ‘조월의 비장(秘藏) 진관사 태극기’, 라디오부문 우수상은 국악방송의 부처님 오신 날 특집 ‘건달버의 노래’, 신문부문 우수상은 금강신문 기획취재팀의 ‘불교 지성의 대화’, 인터넷부문 우수상은 나무야미라블 카페(cafe.daum.net)가 각각 차지했다. 이너는기자

청도 운문사 신임 주지에 일진 스님



일진 스님이 신임 주지로서 소임에 총싹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12월 19일 청도 운문사 신임 주지로 일진 스님이 임명됐다. 일진 스님은 “학인의 마음으로 관세음기도 정진에 더욱 매진해 참회하고, 인욕하며, 움직일 수 있는한 살신수법

해, 자신의 수행과 포교로 주지의 소임을 성실히 수행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운문승가대학(학장 명성)은 청풍루에서 1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국태민안을 위한 오백나한 백일기도’ 회향법회를 개최했다.

법회에서 명성 스님은 “공덕을 증생에게 회향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리회향하는 마음을 내 성불의 밑거름이 됐으면 한다”고 법문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경북불교대학인의 밤

경북불교대학(학장 돈관·은혜사 주지)은 12월 17일 경산 컨벤션센터에서 경북불교대학인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불교대학 졸업생 1000여 명이 참석해 불교중흥을 위한 단합된 모습을 보이며 신심을 다졌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학장 돈관 스님이 경북불교대학인의 밤에 참석해 불교 중흥을 다짐했다.

골굴사 선무도템플스테이 20주년 기념

경주 골굴사에서는 템플스테이 20주년을 기념하여 특별히 200명을 무료 초대합니다.

마애불과 12처석굴의 1500년 사찰 아름다운 골굴사에서 선무도와 문화예술공연관람 및 체험, 대자연과 인연법의 소중함을 배우는 발우공양, 나를 돌아보는 108배 등 다양한 체험과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 나와 남이 둘이 아님을 깨닫는 소중한 인연을 만납니다.

- ※ 대 상 : 장애인 복지단체 및 기초생활 수급자,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가족(다문화가족)
- ※ 기 간 : 2011년 6월, 11월
- ※ 문 의 : 054)775-1689 / 744-1689 fax. 746-0172
www.sunmudo.com / d-kumkang@hanmail.net
경주시 양북면 안동리 산 304번지 대한불교조계종 골굴사

움직이는 禪의 숨결~ 선무도 템플스테이는 언중상시 참가가능합니다
 몸과 마음과 호흡의 조화를 통해 참 나를 찾아가는 길 _ 禪武도

천년의 시공을 초월한 문화의 향연

템플스테이와 함께하는 엔터테인먼트 골굴사

오감으로 느끼는 생생한 문화체험
 보고 듣고 따라하고 느낌으로 배운다

시연 ⇨ 체험 ⇨ 감동의 파노라마

전통무용 대가의 안무와 오랜 수행경력의 선무도 시연단이 이끄는 전문공연단의 특별한 문화예술공연을 골굴사 상설무대에서 매일 만날 수 있습니다.

매일 오전 11시, 오후 3시 정기공연
 2011년 1월 1일부터 (관람료없음)

사천왕 四天王
 Devas Guardian



선무도와 함께하는 ‘2011년 해맞이 템플스테이’에 초대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11교구 골굴사·선무도 화랑사관학교·(재)선무도대금강문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안동리 산 304번지 전화 054)775-1689, 744-1689